보도자료

문의
동향분석실(거시경제 전망)
(02) 3299-3101
주력기간산업실
(산업별 전망)
(02) 3299-3249

2005년 산업경제전망

2004. 12

산 업 연 구 원

차 례

<요약> ····· i

Ⅰ. 거시경제 전망 ····· 1
1. 실물경제 모습과 방향성 ····· 1
2. 주요 대외변수 전망 ····· 3
(1) 국제유가 ····· 3
(2) 환율 ····· 4
(3) 주요국 경기 ····· 6
3. 국내경제 전망 ····· 7
(1) 개요 ····· 7
(2) 민간소비 ····· 8
(3) 투자 ····· 9
(4) 수출입 ····· 9

Ⅱ. 산업별 전망 ····· 11
1. 2004년 동향 ····· 11
2. 2005년 전망 ····· 12
3. 업종별 전망 요약 ····· 16

<요 약>

Ⅰ. 거시경제 전망

□ '05년 성장률은 '04년 보다 낮아지나 체감경기는 개선 예상

○ 내년도 성장률은 금년 예상치인 4.9% 보다 약간 낮은 4.3%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민간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기대되나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임.

○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시가 본격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- 경기부양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임.

<표 1> 주요 거시지표 전망

단위 : 전년동기대비 %, 억달러

	2003	2004			2005		
	연 간	상반기	하반기	연 간	상반기	하반기	연 간
실질GDP	3.0	5.4	4.5	4.9	4.2	4.5	4.3
민간소비	-1.4	-1.0	-0.7	-0.8	1.9	3.8	2.8
총고정자본형성	3.6	3.3	2.8	3.0	4.3	5.7	5.0
설비투자	-1.5	3.0	6.0	4.5	6.2	9.2	7.7
건설투자	7.6	3.9	1.9	2.8	2.6	3.5	3.1
수 출	1,938	1,232	1,302	2,534	1,358	1,402	2,760
(증가율)	(19.3)	(38.3)	(24.3)	(30.7)	(10.2)	(7.7)	(8.9)
수 입	1,788	1,080	1,161	2,241	1,236	1,287	2,523
(증가율)	(17.6)	(25.7)	(24.9)	(25.3)	(14.4)	(10.9)	(12.6)
수출입 차	150	152	141	293	122	115	237

주 : 하단의 수출입은 통관 기준.

□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○ 2004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, 2005년 중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.

- 정부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.
-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, 원/달러 환율도 1,00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하방경직성이 강해져 조만간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.
- 장기 소비침체의 한 원인인 가계의 과잉채무부담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임.

□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전망

○ 2004년 상반기에 1.0%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으로 0.8% 감소할 전망임.

- 최근의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에 비추어 내년 1/4분기까지 민간소비의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○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2005년의 소비증가율은 상반기 1.9%, 하반기 3.8%, 연간 2.8%로 예상

□ 건설투자는 저조하나 설비투자는 건실한 증가 예상

○ 2004년 상반기 중 3.0%의 증가에 그친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는 6.0%로 증가율이 높아져 연간 전체로 4.5% 증가할 전망임.

○ 2005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내수경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도 비교적 높은 7.7%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- 소비회복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○ 2004년 상반기에 3.9%의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증가율이 1.9%로 낮아져 연간 전체로는 2.8%의 증가에 머물 전망임.

○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효과가 예상되어 건설투자는 2004년과 비슷한 3.1%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□ **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견조한 신장세 예상**

○ 금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세와 대중국 수출 호조, IT제품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30.7% 증가한 2,53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.

-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의 15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운 293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.

○ 2005년 중 수출증가율은 2004년의 수출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, IT 제품의 가격 약세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8.9%로 낮아질 전망임.

- 수입은 원화 강세와 고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12.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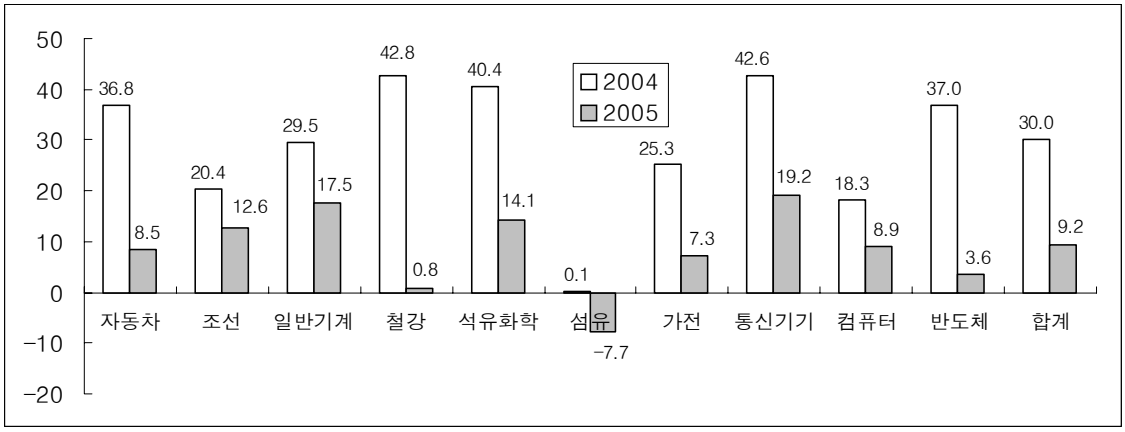
Ⅱ. 산업별 전망

□ 내수는 다소 회복되지만 수출증가세 둔화로 산업성장세는 둔화

○ 2004년 달러 금액기준으로 30%나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 업종의 수출증가율이 2005년에는 9.2%에 머물 것으로 전망

- 수출은 통신기기 한 업종을 제외하면 실질기준으로 전 업종이 한 자리 수 증가율 내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, 달러 금액기준으로도 조선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통신기기 등만이 두 자리 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특히 섬유는 2005년에 미국, EU, 캐나다 등의 쿼터 폐지로 수출이 감소되겠고, 제품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철강의 수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
- 그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반도체수출도 일본 업체들의 본격생산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

<그림 1> 주요업종의 수출증가율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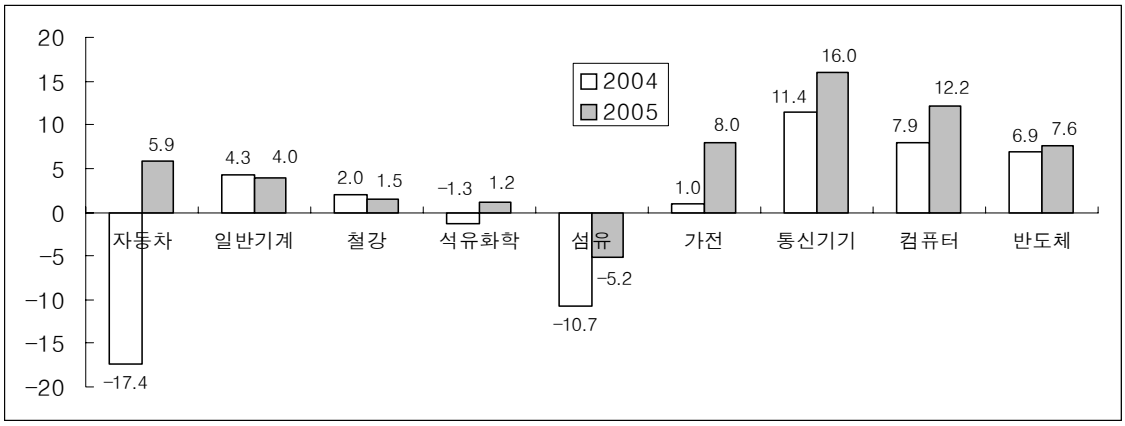
주 : 달러기준 명목금액 증가율

○ 한편, 내수는 자동차,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되나,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

- 제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, 신제품의 출시, 위성 DMB 등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에 따라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 등 IT 내구소비재의 내수는 2004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

- 한편, 자본재 및 소재산업인 일반기계, 철강, 석유화학 등의 내수는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

<그림 2> 주요업종의 내수 증가율 전망



주 : 실질기준임. 자동차는 완성차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는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임.

□ 내년에도 IT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
○ 2004년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, 반도체 등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5%를 상회할 전망이고, 특히 통신기기는 15.1%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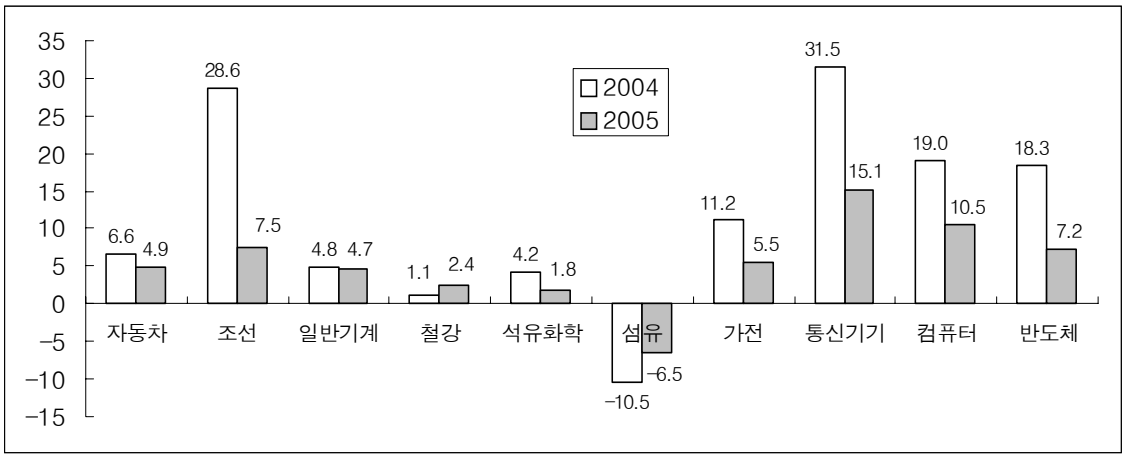
- 컴퓨터, 가전,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, 내수증가율이 비교적 높은데 기인하며,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 때문

-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겠지만, 7%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
○ 한편, 자동차나 일반기계의 경우 내수는 회복되지만,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생산증가율은 2004년보다 낮은 5%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

○ 철강,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, 내수부진 등으로 2005년은 2%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,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
<그림 3>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



주 : 실질기준임. 자동차는 완성차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는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임.

□ 원화절상으로 주력산업 대부분 채산성 악화 우려

○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달러표시 제품가격을 인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.

- 특히, IT제조업의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은 채산성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.

○ 한편, 철강 및 석유화학은 제철원료나 원유를 해외에서 거의 전량 구매하므로 원화표시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될 수도 있음.

- IT제조업 중 수입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도 채산성 악화가 크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
Ⅰ. 거시경제 전망

1. 실물경제 모습과 방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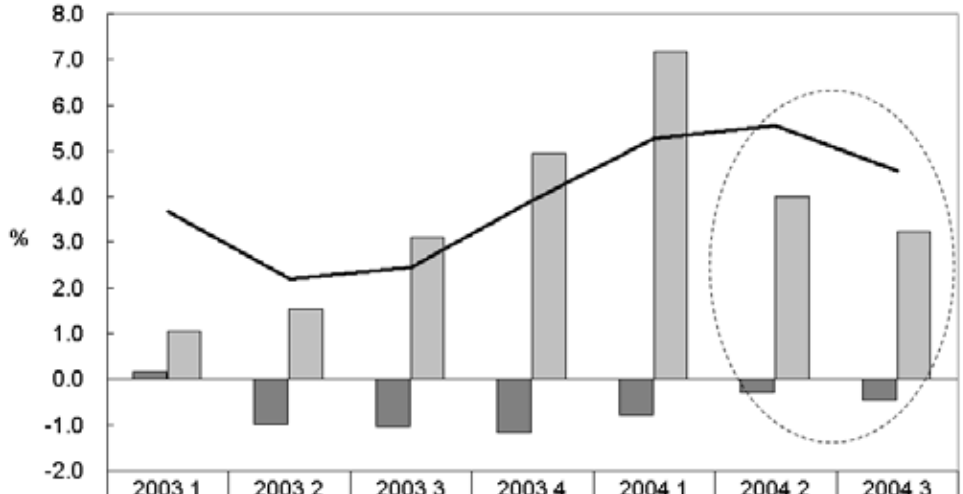
□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

○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주도에 의한 성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임.

- 국민계정 상으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여전히 성장세를 잠식하는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도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(<그림 1> 참조).

○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면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부문이 침체된 내수부문을 견인하지 못하고 하강하고 있음은 향후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함.

<그림 1> 실질GDP 성장률 추이



	2003 1	2003 2	2003 3	2003 4	2004 1	2004 2	2004 3
민간소비기여도	0.2	-1.0	-1.0	-1.2	-0.8	-0.3	-0.4
순수출기여도	1.1	1.5	3.1	5.0	7.2	4.0	3.2
실질GDP성장률	3.7	2.2	2.4	3.9	5.3	5.5	4.6

자료: 한국은행

○ 경기종합지수로 볼 때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(<그림 2>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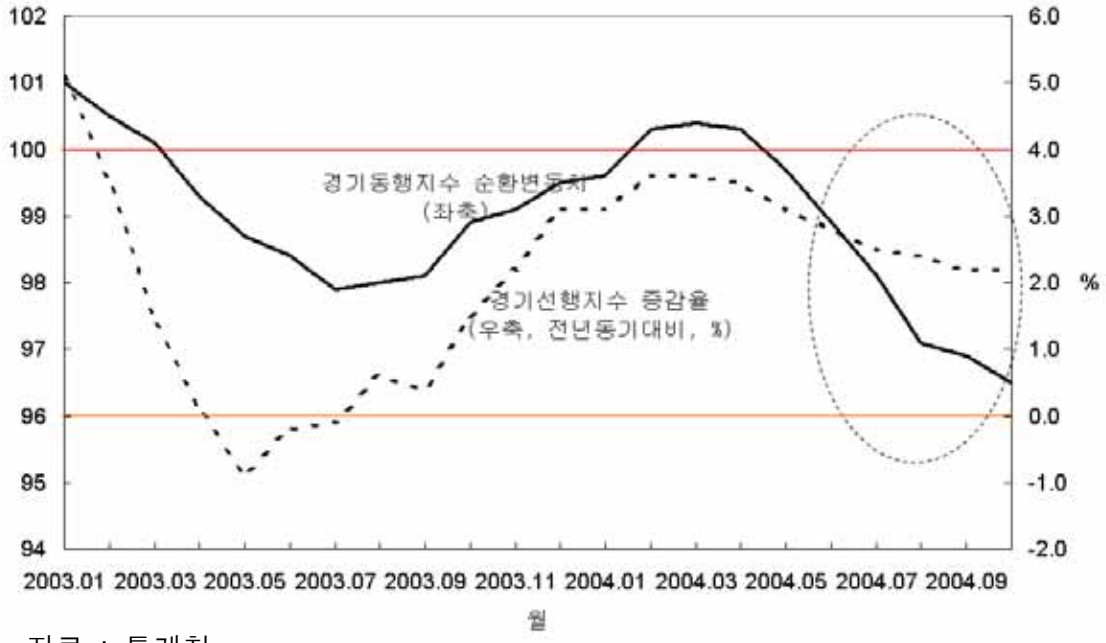
-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금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한 후 100 이하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 역시 비슷한 시기를 전후로 둔화되고 있음.

○ 향후 실물경제의 향방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회복이 수출의 둔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.

- 2004년 중 유례없는 호황을 보인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고유가 기조의 지속 및 IT산업 경기의 둔화로 인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화 환율의 하락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임.

- 따라서, 6분기 연속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가 저점을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시기가 경기국면이 반전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.

<그림 2>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통계청.